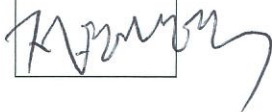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회

2021학년도 제2차 회의록

의장 서명


1. 회의 일시 : 2021. 06. 24.(목) 15:15 ~ 17:20
2. 회의 장소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801호 회의실
3. 회의 참석자
 - 평 의 원(10명) : 이광은, 박용구, 이창준, 윤호숙, 김희진, 정현혁, 조기석, 김수진, 유용일, 이영만
 - 불 참(1명) : 권원순
 - 회의지원(1명) : 엄종섭
 - 학 교(1명) : 박헌일 기획처장
4. 회의 안건
 - 대학평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논의
 -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관련 후속 진행경과 논의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설 계획(안) 심의
5.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엄종섭 기획팀원이 재직 평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대학평의회 운영 규정 제10조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정현혁 의장이 2021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회 회의 개최를 선언함.
6. 회의내용
 - 정현혁 의장이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6월 23일(수) 9:00부터 17:00까지 진행된 회의자료 열람에 대하여 설명하고 2020학년도 결산 실험실습비 세부 내역 중

대학평의회										
		이광은	박용구	이창준	윤호숙	김희진	정현혁	조기석	김수진	이영만

한국교육실습 실습비 관련하여 한국어교육실습 과목 운영에 대하여 시수를 인정받으면서 실습비를 별도로 받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을 요청함.

○ 관련 부서 확인 결과 담당자의 부재로 추후 자료를 요청하기로 함.

1)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논의

○ 정현혁 의장이 원활한 안건 논의를 위하여 그동안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회의록 공개 관련 진행 경과에 대하여 설명함.

○ 박용구 평의원이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람 진행 방법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며 이메일로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초안을 평의원들에 사전 안내한 후 서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함.

○ 윤호숙 평의원이 그동안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람 절차에 대하여 추가 설명함.

○ 김수진 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작성 방법 및 회의록 공개 관련 사항은 염려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다음 회의 안건으로 부의하는 것을 제안함.

○ 이영만 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알권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논의시에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정현혁 의장이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설명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개와 비공개는 회의 내용 일부 또는 전체를 공개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홈페이지에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박용구 평의원이 대학평의원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보면 회의록을 실명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고 한국외대 대학평의원회의 경우도 실명으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 의원들이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사항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15시 40분 박헌일 기획처장 입장)

2)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관련 후속 진행경과 논의

○ 정현혁 의장이 박헌일 기획처장에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관련 후속 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후속 TF를 구성하여 각 부서

별로 우리 대학의 부족한 점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취합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답변함.

- 정현혁 의장이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 관련 후속 TF 중간 보고회 자리를 만들어 대학구성원에 안내해 주시기를 요청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함.

3)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설 계획(안) 심의

- 정현혁 의장이 박헌일 기획처장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설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특수대학원 신설 필요성, 신설 대학원 개요, 교원 충원 계획(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등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설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함.
- 정현혁 의장이 6월 14일(월)에 진행된 교무위원회에서는 동일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로 심의가 진행되었음을 언급하고, 교무위원회 위원인 김수진 평의원에 교무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함.
- 김수진 평의원이 교무위원회 상정 안건과 대학평의회 상정 안건이 동일함을 언급한 후 교무회의록 공람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함’이라는 논의결과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회의록에 반영해주시기를 요청했으나 교무학사팀을 통해 수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음을 설명한 후 교무회의록 공람페이지에 의견을 적을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언급함. (공람페이지 의견 : <특수대학원 신설>과 관련하여, 김수진 위원은 정보공유의 불평등, 경쟁을 전제로 한 신설신청서 접수 및 평가, 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 불투명성에 대하여 위원장 및 선정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음. 회의는 매우 비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자유로운 의사개진에 제한이 있었음을 밝힘.)
- 김수진 평의원이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설 계획(안)’ 추진경과 내용 중 2020년 9월 우리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인 ‘VISION2030’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다고 하였으나 대학 구성원은 해당 문건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언급함. 교수회의(학부장회의, 교수협의회 회의 등)에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내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금년에는 어떤 대학원이 되었던 간에 추진하시지 않겠냐는 총장님의 답변을 기획처장님께 받은

사실을 추가로 설명함.

- 김수진 평의원이 4월 26일 전략회의에서 신청서 평가 후 ‘케이-에듀테크 (K-EdTech) 창의융합대학원’ 으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대학원 설립안을 제출한 5개 외국어학부 연합은 공식적으로 선정 결과 및 선정 근거와 기준을 통보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을 결정 당사자인 총장님께 서면으로 2회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신청서 선정 과정에 불공정성,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강조함.
- 이광은 평의원이 오늘 대학평의원회 회의가 사이버한국외대 내부에서의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지 아니면 특수대학원 추가 신설 계획(안) 자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함.
- 윤호숙 평의원이 신설 계획(안)에 추진 경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성을 언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추진 목적과 신설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2011년 TESOL대학원을 설립할 당시부터 일본어학부도 대학원 신설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비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상황, 2019년 6월 ‘혁신성장 전략 및 미래 비전 TF’ 운영 당시 대학원 확장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대부분 반대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던 상황을 추가로 설명함.
- 윤호숙 평의원이 일반대학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령이 제정되어 사이버 대학에 위협이 되고 있고, 한국어학부 최근 입시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가장 좋았고 2020년도에는 하락하는 등 입시 실적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학교 당국에서는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로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밝힘.
- 윤호숙 평의원이 촉박한 일정으로 설치인가 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교원 충원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학부 교원 채용은 교체 충원이기 때문에 추가 증원이 아니라고 답변함.
- 이광은 평의원이 정현혁 의장에 특수대학원 추가 신설 계획(안)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진행을 요청함.
- 정현혁 의장이 지금 시점에서 특수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이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정현혁 의장이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석사와 학사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이 지난 2월 제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온라인 학사 과정을 신설한 것을 설명하고 KFL대학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에도 설치 운영중인 상황에서 과연 온라인 과정으로 한국어교육대학원을 신설하면 일반대학에 비해 얼마만큼의 강점을 가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함.
- 김희진 평의원이 미래교육한국어대학원 신설 계획 관련하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개원을 목표로 100% 온라인 과정으로 한국어교육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교육대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이화여자대학교와 직접 경쟁대상이 되는 상황임을 설명함. TESOL대학원 신설 당시 3번의 도전 끝에 인가를 받은 결과 외부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이 매우 높았음을 설명하고 추진 경과에는 ‘대학구성원 대상 대학원 수요조사’ 만 진행된 것에 아쉬움을 언급함.
- 윤호숙 평의원이 교원 충원 계획(안) 내용에 ‘2021년 9월 임용 대상자 채용 진행 중’ 으로 작성되었음을 지적하고, 일본어학부 재학생 수가 한국어학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어학부 정년트랙 교원은 2명인데 비해 한국어학부의 경우 정년트랙 교원 2명에서 1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함. 추가로 기획처장님이 현재 진행중인 채용은 추가 충원이 아니라 교체 충원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대학원 신설 계획(안)에 담긴 교원 충원 계획이 학부를 위한 것인지 대학원 신설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이영만 평의원이 일부 학부에 편중된 대학원 신설 계획으로 보이며 대학 전체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밝힘. 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올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분열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평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덧붙임.
- 박용구 평의원이 지금까지 개진된 의견을 정리해보면 급변하는 교육시장에 대비해서 대학원을 신설하면 안된다는 것인지 질의함.
- 정현혁 의장이 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답변함.
- 박용구 평의원이 추진 경과를 보면 4월 22일에 외국어학부 연합에서 인터네셔널 콘텐츠 번역대학원을 신청하고 한국어학부에서 케이-에듀테크(K-EdTech) 창의융합대학원을 신청했다는 것은 대학원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반해 오늘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힘. 추가로 절차 부분에서 규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함.

- 조기석 평의원이 그간에 여러 학부에서도 대학원 설립의 의지가 있었지만 법인 책무성 부분이 미충족하여 추진하지 못했으나 올해 해당 조건이 충족함에 따라 신청의 기회가 생겨 외국어학부 연합과 한국어학부에서 신청하게 된 상황임을 설명함. 집행부 입장에서 두 개 대학원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 개 대학원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지만 공감대 형성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박용구 평의원이 절차 부분에서 규정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대학원 신설 계획을 추진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올해 법인 책무성 관련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도 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국어학부만이 아니라 외국어학부 연합도 동시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윤호숙 평의원이 절차를 정확하게 밝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절차도 문제이지만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함.
- 정현혁 의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선정과정이 불투명했다는 것과 4월 22일에는 창의융합대학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돌연 미래교육한국어대학원으로 대학원 명칭을 변경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 이광은 평의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외에도 온라인 KFL대학원을 신설하는 대학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온라인과정으로 KFL대학원을 신설한다면 해당 대학에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과정 한국어교육 수요는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힘. 추가로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에 비해서 사이버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질의함.
- 정현혁 의장이 사이버대학 학부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비교적 쉬운 입학 전형을 통해 4년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학하지만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경우에는 학부와는 다르게 오프라인대학과 큰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고 사이버대학 내부에 있는 입장에서 오프라인대학 대학원에 비해 사이버대학 대학원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함.
- 이광은 평의원이 일반대학에서 온라인 교육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대학에서 온

라인 교육을 확장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니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신중론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함. 대학원 신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수요측면이라고 생각하며 이화여자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과정 한국어교육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임.

- 이영만 평의원이 대학원을 신설하면 초기 3~4년은 수입보다 지출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학부만을 위해서 3~4년간 대학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미래교육한국어대학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을 밝힘.
- 이창준 평의원이 금일 회의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이 쉽지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고 일반대학이 온라인과정 대학원을 신설하여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사례를 비추어 보면 온라인과정 운영 초반에는 콘텐츠의 품질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았던 적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온라인 교육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일반대학 온라인 과정 대학원에 비해 분명하게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힘.
- 이창준 평의원이 대학원 신설에 추가되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질의함.
- 정현혁 의장이 일반대학과의 차이는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부분이며 전임교원도 별도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이 평균적으로 개당 1,500만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추가 설명함.
- 유용일 평의원이 지난 사례를 보면 학부나 대학원을 신설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인데 그런 내용이 자료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히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힘. 추가로 과거 대학원 신설 시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원 명칭에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교사자격이 주어지는 교대, 교육대학원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명칭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 김희진 평의원이 제2교사 건립 관련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원 신설에 5~6억정도의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총장님 재임 기간동안 전체 교수가 한자리에 모여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함.
- 박헌일 기획처장이 콘텐츠 제작비용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콘텐츠에는 전략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제작비용은 800만원 ~ 1,2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함.
- 윤호숙 평의원이 대학 전체 학부(과)에서 콘텐츠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가 지출을 해서라도 대학원을 신설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을 밝힘.










- 의장이 본 안건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의견별로 표결을 제안하였고 의원들이 숙의한 후 정현혁 의장, 윤호숙 평의원, 김희진 평의원, 조기석 평의원, 김수진 평의원, 이영만 평의원이 금번 특수대학원 신설은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광은 평의원이 기회가 마련된 올해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를 표명함. 박용구 평의원, 이창준 평의원, 유용일 평의원은 기권함.
- 의원들이 숙의한 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대학원 신설 계획(안) 심의를 완료함.

7. 폐회선언

- 정현혁 의장이 폐회를 선언함. 끝.

2021년 6월 24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 장	정 현 혁	
평 의 원	이 광 은	
평 의 원	박 용 구	
평 의 원	이 창 준	
평 의 원	윤 호 숙	
평 의 원	김 희 진	
평 의 원	조 기 석	
평 의 원	김 수 진	
평 의 원	유 용 일	
평 의 원	이 영 만	